

[보도자료]

이 자료는 2012년 3월 16일(금)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세가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시간에 미치는 영향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배포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배포 날짜 : 2011년 3월 16일(금)

언론 담당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홍보담당 황애리

(연락처: 02-3156-7296 / 이메일: aeri2008@kwdimail.re.kr)

보고서 관련 문의 : 김영숙 연구위원

(연락처: 02-3156-7123 / 이메일: youngkim@kwdimail.re.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최금숙)은 2011년도 「조세제도의 성인지적 분석 : 개인소득세와 근로장려세제를 중심으로」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가지고 근로소득세가 기혼여성의 근로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2011 연구보고서>

조세제도의 성인지적 분석 : 개인소득세와 근로장려세제를 중심으로

◎ 연구책임자 : 김영숙 연구위원

◎ 분야 : 성인지예산/노동



□ 기혼여성에게 부과되는 근로소득세가 근로시간에 영향

- 소득세액이 증가하는 경우 기혼여성은 기존의 가처분 소득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여가를 줄이고 근로시간을 늘리는 경향이 나타남.
 - 95% 신뢰구간에서 소득세액이 1% 증가하면 주당 근무시간은 0.04~0.21% 증가함.
- 다음의 두 가지의 경우, 위와 같은 경향이 약해지고, 소득세액이 증가하면 노동공급시간을 줄이는 대체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남.
 - ① 미취학자녀 수
 - 미취학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세액이 주당 평균근무시간에 미치는 정의 효과는 유의하지 않음.
 - 대부분의 자녀돌봄노동이 여성에 의해 수행되고 있고, 기혼여성의 대부분이 2차 소득자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추측됨.
 - ② 월평균 가구소득
 -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높아질수록 소득세액이 증가하면 근로시간을 줄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95% 신뢰구간에서 소득세액이 1% 증가하면 월평균 가구 소득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비해 주당 근무시간은, a) 200~399만원인 경우 0.14~0.00% 감소하고, b) 400~599만원인 경우 0.17~0.01% 감소하고, c) 600만원 이상인 경우 0.27~0.0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조세제도와 관련된 재정적 유인이 필요함.

○ 특히 자녀세액공제제도의 도입은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의 재정적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조세제도와 관련된 재정적 유인은 노동공급이 가능하지만 경제활동 참여로 인해 발생하는 기회비용으로 인해 노동공급을 하지 않는 중산층 홀벌이 가구의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할 수 있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국책연구기관이다. 현재 한국의 여성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여성정책 및 여성 능력 개발, 여성 연구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복지 증진과 가족 그리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법령, 정부정책 등에 대한 성별 영향평가분석을 하고 정부예산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을 하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1983년 개원한 여성정책 전문연구기관으로서 2007년 5월 한국여성개발원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으로 기관명을 바꾸고,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 Think-Tank 역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보도자료 끝.